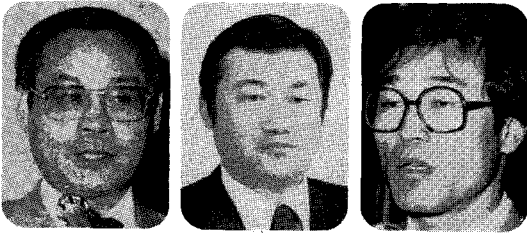


# 축산업계 소식

## 84영양사료 기술세미나 및 컴퓨터 워십 —신축사료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인규 박사) (정태원 회장) (이경원 박사)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 한인규)는 한국 사료협회(회장 정태원)와 ASA(한국지사대표 이경원)의 후원으로 사료회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1984영양사료기술 세미나 및 컴퓨터 사용을 위한 워십을 관련업계 인사 및 농수산부 관계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개회사에서 한인규박사(한국영양사료 연구회장)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관련업계의 근검 절약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세미나와 워십이 우리나라의 침체된 축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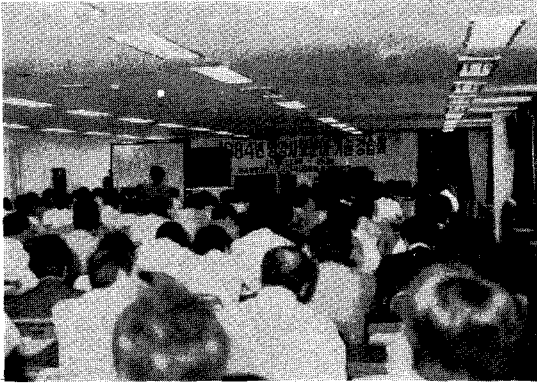
이어 축사는 송찬원국장(농수산부 축산국)이,

환영사는 정태원회장(사료협회)이 했다.

세미나에 들어가 이범섭과장(농수산부 사료과)의 「사료관리법 개정방향」에서는 옥수수율 61%로 낮추고 펠렛사료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료 절약을 기할 방침이며, 1963년 개정에 이어 2차개정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결과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료사료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W. Shuey 박사(미연방곡물검사소), 곡물사료 다변화를 위한 자료에 백인기박사(중앙대 농대교수), 곡물 저장 사일로의 현황 및 품질관리는 박경규박사(경북대 농대), 액상사료 첨가기술에 대해서는 장동일박사(충남대 농대), 버퍼제의 작용 기작은 하종규박사(서울농대), 반추가축에서의 질산염 대사와 중독문제는 손용석박사(고려대 농대), 칼슘 공급제의 임자 및 주문은 이규호박사(농촌진흥청), 사료용 곡물의 수급방향은 권배전무(한국사료협회), 사료 첨가제의 사용현황 및 문제점은 이희구전무(한국 동물약품협회), 동물성 단백질 사료의 수급 현황은 유동준전무(한국 단미사료협회), 식물성단백질 사료의 수급현황에 이경원박사(ASA한국지사)가 각각 발표를 했다.

워십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배합용 작성 방법에 대해 정영근·김창원박사(KAIST)가, 사료



공장 경영을 위한 컴퓨터의 사용과 컴퓨터사용을 위한 워킹샵에는 Boenker 박사(미 아이오와주 Protein Blenders 사 부사장)가 발표에 나섰다. 며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다.

### 동진회 계란유통에 적극 참여



(고태영 회장)



(노광순 총무)

대군 채란업자의 모임인 동진회(회장 고태영)는 지난 6월 모임을 충남 유성에서 가졌다.

6월 15일 유서관광호텔 난초홀에서 개최된 동진회 월례회에서는 업계의 현황분석과 동진회가 업계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란업계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동진회가 집란센터(GP센터) 설립에 앞장서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기금 천만원을 만들고 앞으로 매월 2백만원씩 정립하여 내년 GP센터 설치 준비금으로 하여 내년 하반기

에는 하루 2백만개 정도 처리할수 있는 GP 센터를 서울 근교에 설치키로 만장 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렇게 되면 85년 하반기부터는 한냉의 50만개와 전복의 백만개 처리와 함께 우리나라 3번째의 GP센터가 설치되면 그 규모에서 최대로 서울시 물량의 절반을 처리하게 되어 생산자는 안심하고 계란 생산에만 전념할수 있게 된다.

동진회 회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란의 유통개선을 위해 일본 등을 시찰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업체를 돌아보고 GPC 설립에 필요한 기종선택 등을 마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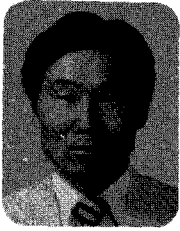
### 영남제분 양산 신공장 준공

— 6월 19일, 초현대식 규모 —

영남제분<주>(대표 유용술)은 지난 6월 19일(화)경남 양산군 양산을 교리 72번지(유산공단내)소재 신공장 준공식을 관내 기관장, 유관단체, 관계공무원, 양축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동 공장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만1년만에 대지 3천여평(약 1만m<sup>2</sup>)위에 세워진 연산 12만톤 생산규모의 초현대식 공장으로서 사일로 6기(5천톤), 분쇄원료빈(860톤), 25kg사료포장기 외에 500kg들이 콘테이너백, 무포장벌크, 펠렛사료 시설 등 공장과 새로운 기계가 설치되었다.





(김병태 이사)



(유용술 사장)

이날 준공식에서 유용술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훌륭한 시설과 장비설치에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을 가미해 더욱 양질의 배합사료를 생산할 뜻을 밝히고,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약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하는 한편, 양질의 사료를 적기에 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축산업과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가일층 힘쓸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신공장 준공에 공이 큰 이영소 양산 배합사료 전문본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공장견학과 리셉션을 통해 관련업계 참석자들의 우의와 협조를 다짐했다.

한편 동사는 신공장 준공에 때를 맞추어 서부경남 일원의 양축가 편의를 위해 마산에 하치장을 신설했다.

또한 사세확장과 영업의 효율화,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지난 5월 1일 영업이사에 김병태 씨(전유영공업사 전무)를 기용하고, 영업부차장에 최기현(전 영업과장)씨를 승진 발령하는 한편, 영업부에 김점명대리(전 부산가축약품)를 특채한 바 있다.

본사: 부산시 남구 대연 3동 598-7

☎ (622) 3782~4, 9073, 4564

신공장: 경남 양산군 교리 72번지

☎ (부산) 463-1883~5 (양산) 8229~30

서울사무소: ☎ (753) 0206, (754) 7927

대구사무소: ☎ (623) 5281~2

경주사무소: ☎ (2) 2374

마산하치장: 마산시 양덕동 95-1 (구 미 8군 분창내) ☎ (55) 1240

## VIV '84 국제무역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Utrecht서—

VIV '84 국제무역쇼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Utrecht에서 열린다.

이번 무역쇼에는 양계 및 양돈산물 위주로 축사, 기계 기구, 질병, 가축관리, 환경조절 등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지난 82년 행사에는 동서유럽, 중동, 극동 등지의 69개국에서 40,000여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번 대회를 위해 이미 16개국에서 310명 이상의 업자들이 전시장(25,000m<sup>2</sup>)을 신청해 놓고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HOUAND AGRITOUR」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여행일정을 소개한다.

◎ 3일간(10.23~25)

● 제 1일: 네덜란드 도착, 여행안내자와 상면, VIV 전시관에 참석하거나 Utrecht 또는 근교에서 기거.

● 제 2일: Utrecht 또는 근교에 숙소를 마련하고 종일(10:00~18:00) VIV '84 무역쇼 참관.

● 제 3일: 관계 전문분야 방문, 중식후 출발

◎ 5일간(10.23~27)

● 제 1일, 제 2일: 위와 동일.

● 제 3일: VIV 참관, 산업·무역모임 참석, 워크샵

● 제 4일: 관계 전문분야 방문, 계획에 따라 오후시간 활용

● 제 5일: 출발

## 86올림픽관련제품 전시회

—〈주〉대정식품, DJ치킨—

〈주〉대정식품(대표 이현정)은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KBS 주최로 여의도 '만남의 광장' 전시장에서 열린

88올림픽관련제품 전시회에 DJ 치킨 (스테이크 미트볼, 고로케, 꼬치)을 출품하였다.

국내 최초로 생산된 서구스타일의 닭요리 가공식품으로 네델란드의 현대식 컴퓨터 시설에 의한 생산, 현대식 유통시스템에 의해 판매되는 위생적인 닭가공식품으로 DJ치킨은 어른의 영양간식은 물론 술안주에 이르기까지 꼬치, 스테이크 등의 제품을 비롯 통닭, 소단위포장의 부분생육 등 수십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 대규모 생산공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었다.

### 「건강생활」콜레스테롤기사 게재

국내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월간 건강생활」은 지난 6월호에 서울대 농대 한인규 교수의 '한국인과 콜레스테롤'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기사에서 한인규박사는 콜레스테롤은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로서 너무 많아도 나쁘지만 부족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고, 현 한국인의 축산물 소비수준으로는 콜레스테롤을 걱정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며, 오히려 계란·닭고기와 같은 값싸고 영양분이 많은 축산물을 많이 먹어 국민 체력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 6월29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제20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회장: 설동섭)가 지난 6월 29일(금) 오후 3시부터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전염병 발생실태, 예방약 검정수급 실적, 홍보, 가축질병 예찰통보내용 등이 보고 되었으며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강화(특히 소, 돼지),가금전염병 예방약 접종방법 지도 등이 협의되었다.

특히이날 회의에서는 양계에 있어 SP 및 MG

검색강화 방안 모색과 ND 및 ILT 예방접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것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 농지세 내년부터 대폭 인하

—실소득에 따라 16구분하여 과세—

이제까지 도시근로자의 소득세보다 부담이 무거웠던 농지세가 내년부터 사업소득세와 균형되게 개편 시행돼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확정된 개선안은 이제까지 벼에 물렸던 甲類농지세와 과수 채소 인삼 연초 묘목등에 물렸던 乙類농지세의 구분을 폐지, 단일화하고 기초 공제액을 사업소득세와 같이 年1백44만원(현행 잡류 1백15만원, 울류 34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과세표준도 이제까지 잡류는 粗收入, 울류는 粗收入에서 필요경비를 뺀 實所得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實所得기준으로만 적용, 농지세를 소득세의 일종으로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율구조도 현행의 6~10% (잡류) 또는 10~20% (울류)의 3단계에서 앞으로는 사업소득세와 같이 6~55% 16단계로 크게 세분화 하기로 했다.

보리와 감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농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개편으로 농지세의 稅取는 내년에 8백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데 종래농지세 수입이 지방재정의 56%나 차지했던 점을 감안, 농지세 稅取결함은 담배의 專賣益金에서 전액을 메워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초판매세를 신설, 市郡 전매서가 담배 판매수익의 10%내외를 연초 판매세로 市郡에 납세하는 형식으로 농지세 稅取결함을 메우기로 했다.

이 경우 市보다는 郡재정의 농지세 의존도가 훨씬 크기때문에 전매서가 市郡에 내야할 연초

농지세제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감류 (백)	율류 (과수 채소 인삼 연초 약초 묘목)	
과표	조수입	실소득 (조수입-경비)	통합단일화 실소득
기초공제	115만원	34만원	144만원
과세단계	3단계	3단계	16단계
세율	6~10%	10~20%	6~55%

판매세의 세율을 市전매서에는 보다 낮게 하고 郡전매서에는 보다 높게 함으로써 농지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연초 판매세의 신설로 담배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가 1백28만가구가 1정보미만

우리나라 2백만농가의 64.5%인 1백28만9천7백 가구가 1정보(3천평)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으며 농지가 없는 농가는 2.6%인 5만1천9백가구, 0.5정보미만의 농지소유 농가는 57만 1천1백가구(2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3일 농수산부가 밝힌 작년말 경지규모별 농가수통계에 따르면 0.5정보 미만의 영세농은 10년전인 73년말의 79만 4천 8백가구(32.4%)에 비해 22만 3천 7백 가구가 줄어 전체농가에 대한 비율은 9.8%가 감소했다.

또 0.5~1.5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소농은 73년말 1백21만 4천 5백가구(49.6%)에서 작년말에는 1백11만 2백가구(55.5%)로 10만 4천 3백가구가 줄었으나 전체 비율로는 약 5.5%가 늘어났다.

중남미 농업이민 재개 검토

—코스타리카로부터 요청받아—

정부는 지난 81년이후 중단했던 중남미 지역

의 농업이민을 재개할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남미 지역의 「코스타리카」로부터 농업이민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했던 중남미지역의 농업이민을 새마을 운동의 국제화 차원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난 62년 시작한 중남미 농업이민이 현지사정 및 이민대상의 선정잘못 등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남미지역에 대한 농업이민의 재추진을 위해 10가구 정도의 선발대를 「코스타리카」에 이민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2년부터 정책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농업이민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11개 농장을 구입하고 2백20명의 농업이민을 보냈으나 그들이 현지농장을 대부분 이탈해 버림으로써 81년부터 정부차원의 농업이민 정책을 중단해 왔다. (동아 6.12)

항균사(抗菌網) 효과

—가축위생연 동물대상실험 결과—

항균위생수건이 원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크다는 시험결과가 밝혀져 현재 일부 섬유업체들이 시험 생산중인 抗菌絲의 항균효과가 간접적으로 입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가축위생연구소가 우보산업사로부터 항균위생수건을 위탁 시험한 결과 나타난 것인데, 가축 위생연구소가 분석한 시험내용을 보면 야외젖소에 대한 유방세척을 항균위생수건으로 한 결과 유방염의 주요 원인균인 포도당균의 경우 2억3천만 마리의 세균이 1회 사용시 8천만마리로 줄었고, 5회사용시 2만3천마리, 20회에 86만마리, 30회에 1백 76만마리, 40회에 2억 2천 6백마리가 돼 최소 20회 사용까지는 항균효과가 크며 40회엔 그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장균의 경우는 50회 이상까지 세균 발육 억제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위생연구소는 시험결과 위생수건의 유방염 원 인균에 대한 항균능력은 세척회수 35회까지, 야외젖소 경우는 30회이상 기능을 인정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시험대상인 항균 위생수건은 현재 일부 섬유업체가 시험생산중인 항균사를 토대로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효과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 어분, 육골분 등 단미사료 수입추천

— 7 월 1 일부터 한국단미사료협회서 —

정부는 사료관리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제한된 품목의 수입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수출입 추천품목 및 해당 단미사료명은 다음과 같다.

### 단미사료분야 미국시찰단 구성

—USDA·USFGC 초청으로 7월25일출국—

미국 농무성과 미국사료 곡물협회 공동 초청으로 7월25일부터 8월9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 미국 단미사료분야 시찰이 있다.

시찰대상 업종은 주로 어분, 우모분, 육분, 육골분, 혈분 등 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인산칼슘 등 광물성 단미사료, 미량단미사료 분야이며, 이와 관련된 미국 어분협회 등 관련단체와 사료 품질관리를 위하여 퓨리나 사료도 방문할 계획이다.

국내 단미사료업계의 미국 단미사료업계 시찰은 처음있는 일로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바 있다.

### 농자금상환 2~3 개월 연장

정부는 올해 농민들에게 방출되는 5천 5백 억원 가운데 20%정도(1천1백억원)에 대해서

수출입 추천품목 및 해당 단미사료

CCCN	품 목	해당 단미사료	추 권 범 위
0505 00 00	어류의 웨이스트	어분의 반제품	수출 및 수입추천
0508 01 00	꿀과 호온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탈지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부분과 웨이스트 꿀 분	꿀 분	수 입 추 천
2301 01 01 99 02 01 99	육·설육·어류·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분 및 조분(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수지박 육 또는 설육의 분과 조분 수지박 어류의 분과 조분 갑각류 또는 연체동물의 분과 조분	어분, 육분, 육골분, 골분, 패분, 갑각분, 혈분, 잠용분 및 어즙과 어즙 흡착사료	수출 및 수입추천
3103 03 00	인산비료(광물성비료 및 화학비료에 한한다) 소성 인산석회	인 산 칼 슴	수 입 추 천

는 상환기간을 금년말에서 내년 2, 3월까지 연장, 농민들에게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물리는 것을 막아주고 연체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연도말로 돼 있는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2~3개월 연장해줄 경우 농민들이 영농자금을 갚기 위해 쌀을 싼값에 내다파는 일이 줄어들는 등 큰 효과를 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햄 직산공장 준공식

— 1일도축 500두, 냉동비축12,000두가능—



(주)한국햄 (대표 전동용)공장준공식이 농수산부 조익래 차관, 관계기관장, 양축업자등 500여명이 참석한 지난 6월 15일 천원군 직산면에서 있었다.

이날 기념사에서 전동용사장은 「양돈 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익래 농수산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육가공 공장의 준공이 축산물 수급은 물론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를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안응모 충남지사는 「양돈농가와와의 사전계약으로 적정량 생산, 우수한 품종의 공급 등

으로 양축농가와 가공공장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육가공공장 설계 및 시공회사인 Koch-Supplies 社의 기술 협조로 설립된 한국햄 직산공장은 대지 7,753평, 건평 1,420평 규모로 1일 도축능력 500두, 냉동비축 능력 500톤(생돈 12,000두분), 수출용돈육생산능력 1일 18톤, 육가공품 생산능력 1일 5톤, 폐수처리 1일 250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공장이 완공됨으로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양돈파동을 막고 육류수급을 원활화하는 등 양돈산업 유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축농가 82가구와 계열생산을 하는 등 계열화 생산체제를 다지는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소련 농산물수입 계속감소

미농무성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80년대에 들어 소련의 농산물 수입총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81년에는 소련의 농산물 수입총액이 210억불에 달했으나 1982년에는 190억불로, 1983년에는 180억불로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곡류와 설탕의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인데 지난해에 소련은 3,400만톤의 각종 곡물을 도입했으며 이중 미국에서 수입한 양은 800만톤 정도였다.

지난 1983년도 소련의 곡물생산은 역사상 여섯번째로 높은 1억 9,50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중 사료곡물은 1억 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물생산도 예년보다 호조를 보여 소련의 1983년도 농업총생산액이 기록적이었던 1978년을 능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SDA에 의하면 1983년도 소련의 육류생산은 1982년보다 4% 늘어난 1,600만톤, 우유는 9,640만톤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1월 1일 현재 가축두수를 보면 소가 1억 1,940만두, 돼지 7,850만두, 양이 1억 5,140만두라 한다.

## 중공, 옥수수 日에 수출

중공은 지난 5월초 본토 북부지역에서 생산된 옥수수 10만톤을 일본에 수출했다.

이번에 거래된 옥수수 가격은 톤당 FOB 152불 30센트로서 같은 시기에 거래된 미국산 옥수수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질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수수 수입국인 중공이 일본에 옥수수를 수출하게 된것은 이 시기에 중공 북부에는 옥수수가 남아 돌아가는 반면 남부는 부족한 현상을 보이나, 국내 수송비 문제로 북부의 잉여분을 수출하고 남부에 필요한 양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 한다.

### 동맥경화증 예방·치료에 서광

#### —콜레스테롤치 저하시키는 장균발견—

일본의 한 연구그룹이 최근 동맥경화증의 주요원인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 세라이드 (중성지방)혈청치를 대폭 줄이는 균을 장내 세균에서 발견. 이균을 응용한 동맥경화증 치료·예방 개발에 나섬으로써 난치병인 동맥경화증의 부작용 없는 예방·치료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의 어드밴스 개발연구소와 東京 경찰병원, 메이지대학 의대 공동연구팀은 약 1년만에 결친 장내세균 검사끝에 동맥경화증의 위험신호로 알려지고 있는 혈청중의 고콜레스테롤치, 고중성지방치를 저하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균이 있음을 발견, 이균을 이용한 동맥경화증 예방약 개발에의 길을 트었.

이약은 종래의 곰팡이를 이용한 항생 물질과 달리 인간의 체내에 공생하는 장내세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日本の 어드밴스연구소, 東京 경찰병원 등 공동연구팀은 그들이 발견한 콜레스테롤혈청치를 저하시키는 물질을 만드는 균을 배양하여 균체의 유효성분을 추출, 분말로 만들어

심한 동맥경화증 현상을 보이도록 만든 토끼에 먹인 결과(콜레스테롤을 섞은 사료를 4주일간 먹여 동맥경화증을 갖도록 만든 토끼) 고콜레스테롤치가 9일만에 반감했고, 15주만에는 정상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이다.

東京경찰병원은 또 균체유효성분 분말을 인간에게 복용시킨 결과 부작용이 없었으며 콜레스테롤·중성지방치도 1년반 정도의 복용 결과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 粉乳로 키우면 징역형

방글라데시 정부는 6월 21일 '유아에게 모유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주장에 따라 모유를 권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최고 2년의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고 한다.

이 나라의 국민 1인당 GNP는 120\$ 수준이다.

## 간염백신 획기적 제조법 개발

캐나다 오타와大 강질룡교수는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전공학을 이용한 획기적인 간염백신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유전공학 관계자 1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유전공학연구 발표회에서 姜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방법은 유전공학을 이용, 간염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효모를 증식시켜 간염항원단백질 (간염백신)을 효모 밖으로 내뿜게하는 방법이며 수율(收率)도 종전의 방법보다 2~3배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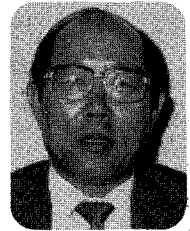
중전에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간염백신을 만드는 방법은 박테리아나 효모속에서 간염의 항원단백질을 증식시켜 박테리아나 효모를 분쇄, 간염의 항원단백질만을 분리 해냈다.姜 교수의 이 새로운 방법은 효모속에 있는 간염 항원단백질만을 뽑아내는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간염항원단백질을 효모밖에서 얻을 수 있고 수율도 대단히 높아 배양액 1ℓ 당 10 mg의 간염항원단백질을 얻을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란 것이다.

姜교수는 자신의 이러한 방법이 세계 최초로 유전공학을 이용한 간염백신제조법이라고 말하고 실험실 규모의 시설을 그대로 확대하면 바로 제품을 만들수 있다고 밝혔다.

姜교수는 이 연구를 2년반부터진 주식회사 녹십자 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이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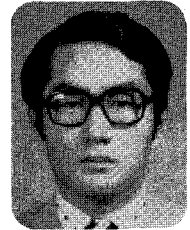
(이계조 회장)



(차두홍 사장)



(강관용 지부장)



(한호섭 사장)

○무지개사료 제주양축상담소 : 대한제당(대표 민중기)은 제주도 지역의 축산발전을 위하여 사료를 도내에 공급키로 결정, 지난 6월 1일자로 상담소를 개설하고 상담소장에 김광수씨(전 양계협회검정소장)를 임명하였다.

주 소 : 제주시 이도 2동 1176-111

(제주시청 동편, 도선거관리위원회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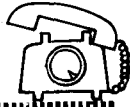
전 화 : 52-1162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동사는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에 부응하고 전사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내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외국인 강사를 초빙, 매일 아침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방유량, 창립18주년 기념식 : 곡물업계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동사는 지난 6월16일 동사 강당에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주년 창립기념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 근속자 표창과 함께 지난해 발족하여 현재약 4배의 배합사료 판매신장을 이룩한 사료사업부 직원에 대한 공로표창도 거행되었다.

## 업계단신



○이계조·차두홍씨 함께 미국 시찰길에 : 양계업계의 2대 부회장인 천호와 한일의 이계조회장과 차두홍사장이 미국 우지협회(NRA)의 초청으로 약2주간 미국 사료축산업계 시찰길에 올랐다.

양계업계의 두 지도급 인사가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미국을 시찰,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구상할 것인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시찰팀에는 이계조, 차두홍씨 외에도 정태원(한국사료협회장 홍성사료), 강태현(중앙사료), 한호섭(부국사료), 강관용(NRA 한국지부장)씨 등으로 구성되었다.

◇ 수상자 명단 ◇

사료사업부 지역과장 이 무 영  
 사료사업부 지역과장 김 중 필  
 사료사업부 관측과 박 규 덕

또 동사는 직원 체력향상과 부서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지난 6월 2일 부서대항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경기방식은 풀리그로 복식 7개팀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인끝에 “사료 사업부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 순 위 ◇

- 1위팀 : 사료사업부 (용인영업소 김병권, 관측과 김대연)
- 2위팀 : 경 리 부 (성순현, 윤 연)
- 3위팀 : 업 무 부 (이항복, 김희중)



○이화약품<주> (대표 이정협) : 지난 6월 5~6일 충남 천원군 소재 광덕사 제곡에서 전 사원의 집합훈련을 통해 소속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전진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는 “team power”, 협동력 개발workshop O·L “단합의 밤” 등으로 진행되어 사원 전체의 단합과 사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업무의 효율과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신입사원을 채용, 1개월간 교육후 각부서에 배치했다.

- 총무부 과장대리 김기호 (전<주> 대성삼린)

- 기획부 양원주 (서울대 수의대졸)
- 영업부 오상호 (경북대 수의대졸)
- 영업부 윤상돈 (연암축산전문대졸)

○제일화학(대표 서정범) : 지난 6월 6일에서 9일까지 영업회의를 겸하여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6월 6일)

「저질조사료 활용」맹원재박사 (건국대), 「배합사료의 생산과 품질」 백인기박사 (중앙대), 「반추위내 영양소대사」김창원박사 (KAIST), 「수정란 이식」임경순박사 (서울대)

(6월 7일)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전망」한인규박사 (서울대), 「반추 영양」하종규박사 (서울대), 「가축개량 방향」박영일박사 (서울대)

(6월 8일)

「양계 질병 SPF 돼지」박근식박사 (가축위생연구소), 「젖소질병」최희인박사 (서울대)

한편 영국 Shell에서 개발된 가장 최신티의 제제인 알콕시레이트제제 **헨도나**를 수입하여 절찬리에 시판중이다.

헨도나는 이미 내성이 생겨서 잘 죽지 않는 파리·모기·바퀴벌레에도 아주 효과가 탁월하고 지속기간이 길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양축가들의 고민거리인 설사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인 **벨코마이신정**을 개발,



시판중이다.

벨코마이신정은 가축의 소화기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적리균, 녹농균 등 거의 모든 그람음성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항생물질로서 모든 가축 특히 어린동물의 설사, 장염 등 소화기질병에 약효가 우수하다고 한다.

○ **풍진화학공업(주) (대표 최성강)** : 제 2차 풍진 전사원 교육훈련이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일산 YMCA 캠프장에서 (한국행동훈련에 위탁) 적극적인 자세, 조직활동 및 인간관계 등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대표이사 및 임원, 4급사원 이상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최성강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이 창업자 중심에서 전사원의 중심으로 변천한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사원들의 창의, 인화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약훈련은 전사원의 열의와 단합으로 성황리에 끝났고 제 3차 훈련을 가까운 시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 **김천동물약품 상사(대표 권시대)** : 개업 다섯돌을 맞아 그동안의 양축가들의 후의에 보답하는 뜻으로 지난 6월 16일 김천문화센터에서 「하절기 양계질병 세미나」를 가졌다.



녹십자수의약품(주)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사로서 김선중박사(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가 「최근 문제가 되는 양계질병」이란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이어서 김진구 상무이사(녹십자수의약품)가 백신의 제조공정 및 가끔 백신에 관한 지식의 전반적인 것을 요약하여 전달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천 지역의 산란계, 육계업자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본 세미나에 앞서 오전에는 김천시 신음 2동에 소재하는 삼애농장(회장 전만성) 회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 **서울계란가공(주) (대표 전용대)** : 오산에 국내 최초로 난가공공장을 설립, 계란처리전문업체로서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7월부터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등을 생산해내고 있는 동사는 올해안으로 난분(egg powder)을 생산해낼 예정이다.

동사는 그동안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완벽한 위생처리시설, 선진기술의 도입·개발은 물론, 이제까지의 등급거래를 지양하고 중량거래 방법을 채택, 계란유통의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서울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6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13

전 화 : 756-4395~8

○ **대전신기농장(대표 이진남)** : 동사 사무실과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전일자 : 1984년 6월 23일

이전장소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0-5

(법원사거리)

전화번호 : 252-9871-4

○ **〈주〉해광(대표 한기영)** : 6월 28일자로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본 사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4

서명빌딩 204호

전 화 677-7527

공 장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12

전화 304-0786

○한일사료(대표 차두홍) : 사료공장 신공장 준공에 따라 8월초까지 사무실을 용인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동사는 이미 새 사무실에 전화를 개설, 일부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전화 : 수원 8-3103~4

2845, 3910, 3107

서울직통 253-5171·2 (7월20일부터)

주소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하갈리 213번지 (8월 이전 예정)

○한국바이엘화학 신규 직원채용 : 한국바이엘화학(주) (대표 김길원)에서는 사세확장과 전국 영업망 확충, 업무 활성화를 위해 6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 채용된 직원중 영업사원은 지방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며, 학술부에 2명의 수의사가 보강됨으로써 학술부에만 7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게 되었다. 채용된 직원은 다음과 같다.

예재길 (학술부/ 서울대수의과 대학원졸/ 전 제일축산 근무)

박 철 (학술부/ 서울대 수의대졸)

유을준 (영업부/ 예산농전졸)

장선순 (영업부/ 신규전문대졸)

이상유 (영업부/ 경성전문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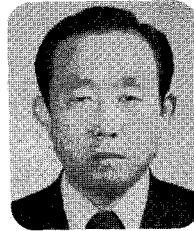
정순래 (영업부/ 전 광주 백제약국 근무)

○엘랑코(한국지사장 모리스) : 사세확장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7월 2일부로 동물약품부에 하재봉씨(전 바이엘화학, 수의사)를 특채하였다.

○유니온통상(대표 양동훈) : 유가공기계, 목초, 수산가공기계 및 수산물 수입·수출 무역대행사인 동사는 영업부에 지난 6월 11일부로 이영구 대리(전낙농 육우협회)를 특채하였다.

○대한육가공협회 회장에 김동곤씨 :

육가공산업의 진전한 발전과 유통구조개선, 돈육 및 계육의 소비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김동곤 회장)

해 12월 발족한 축산물가공협회는 6월30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대한육가공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회장에 김동곤(전 축협이사)씨를 선임하였다.

○김정웅, 신정일씨 : 김정웅(다다상사)전무, 신정일(구량랜드)사장은 덴마마크 도계기구 구입 및 현황파악차 6월23일 출국했다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월 4일 귀국.

신정일씨는 현재 도계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동방유량 인천영업소 해표사료 취급 : 항상 고객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동방유량(주) 해표사료(대표 신명수)는 수원공장과의 거리관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사료운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기존 인천영업소에서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경기지역 강화·김포·고양·파주지역 양축가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소 : 인천 직할시 북구 가좌동 274-7

(전화) 82-5948, 0400

(직원)

지역과장 : 김 목, 박용훈

담당 : 황영구대리

한편 동사는 계속적인 양축가들의 요청에 부응,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사료의 개발에 성공했다. 비육우 육성기중에 급여하는 육성비육사료와, 본격적인 비육으로 들어가서 급여하게 되는 큰소비육 사료는 기존 비육우용 사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축가들에게 공급되어 생산원가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동암 (서울농대) 교수** 6월26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유럽 초지연합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스위스, 덴마크 등지를 둘러보고 7월16일 귀국할 예정.

○ **〈주〉 농수축산신보 (대표 한남석)** : 6월 1일부로 기획조정실에 김지년부장(전 양돈협회 기획부장)을 기용

○ **미국 낙농산업 시찰** : 지설하(국립종축원) 원장, 강태숙(제주대) 교수, 민경구(신흥제분) 이사, 민병렬(USFGC) 차장은 미국 유우능력 검정제도 및 젖소개량, 낙농경영 등 현황 파악차 6월23일 출국했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 **최양부박사 (농경연 지역개발실장)** : 6월28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UNCRD (유엔지역개발센터) 평가회의 참석후 7월 1일 귀국.

○ **〈주〉 현대약품 (대표 진수창)** : 베타딘 농후액(동물용) 1ℓ와 단졸 5kg을 신발매했다. 이번의 신발매는 기존의 베타딘 농후액 250ml, 1 Gallon과 단졸 1kg, 18kg의 중간포장인데 포장용량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베타딘(동물성)**은 젖소와 돼지의 자궁내막염을 예방 치료하는 소독제로서 스위스 Mundipharma AG의 오리지널 원료 및 처방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라이선스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단졸**은 가축전염병의 상비약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으로 용해·현탁성이 우수하고 강력한 살균, 살충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현대약품은 최근 단졸 TV광고 (MBC 뉴스쇼 : 07시~)를 실시, 여름철 가축 전염병예방에 대한 축산농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적극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기여코자 하고 있다.

○ **녹십자수의약품 〈주〉 (대표 장인상)** :

그동안 비타민 합성으로 유명한 스위스 로슈(ROHEE) 사로부터 브러일러용 피부착색제인 캐로필(CAROPHYLL YELLOW, CAROPHYLL RED)을 단독으로 공급받아 사료공장에 판매하여 큰 호평을 받아왔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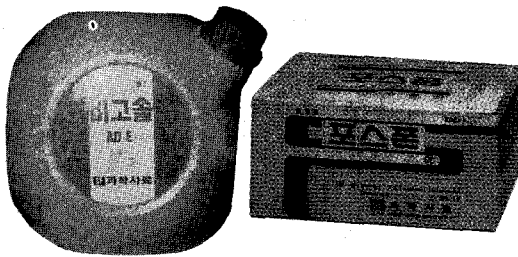
금번에는 양축가들도 필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형태의 캐로필 회색제제를 개발하고, **골든칼라(GOLDEN COLOR)**라는 이름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골든칼라는 브러일러를 출하하기 약 14일전부터 사료 1포(25kg) 당 100g의 비율로 혼합하여 투여할 경우 황금빛깔의 “깔” 좋은 닭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골든칼라의 유효성분은 프로비타민A라고도 하는 캐로틴(CAROTENE)의 일종으로서 과량 투여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그 사용량에 따라서 착색정도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 미국케민(Kemin)사와 제휴하고 있는 동사는 현재 향곰팡이제 Feed curb과 항산화제 Endox를 호평리에 공급하고 있는바, 금번에 Kemin사에서 새로 개발한 적색과 황색이 혼합된 자연 카로티노이드 착색제 **Oro Glo SEA**를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Oro Glo SEA는 Marigolds에서 추출하여 안정화 시킨 것으로서, 피부 착색에 특히 효과가 높기 때문에 육계의 상품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F 과학사료공사(대표 신정재) : 양제산업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해온 고단위 비타민제 비고솔이 특수궤과 5ℓ대포장으로 시판된다.



이 포장의 특수궤은 동물약품업계서는 최초로 개발된 것이며, 특이한 포장으로 유사 제품 남발을 막아 사양가들의 혼란을 줄이고 품질보장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한편 비고솔은 지용성 비타민제를 고유의 방법으로 특수 제조하므로 유화제로 타 제제에 비하여 역가 보존이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이 개발된 특수궤과 고유의 포장은 상공부 의장등록 출원중에 있다.

아울러 각종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외부기생충의 구제를 위해 포스폰을 재개발하여 시판하게 되었다.

강력한 외부 기생충 구제제인 포스폰은 특수 유기인제제로 물에 잘 녹으며, 녹이는 물의 성질에 관계없이 강한 약효를 나타내는 특성 때문에 시판과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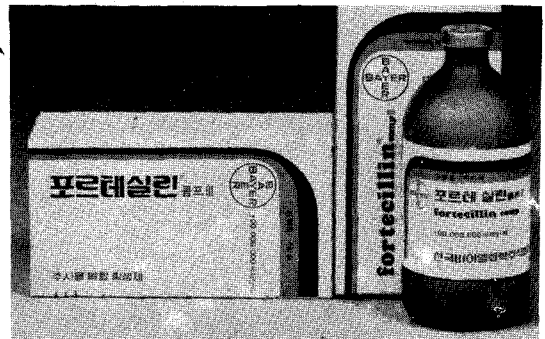
○포르테실린콤포Ⅲ 1억단위 판매 : 양축의 사육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덕용 포장이나 고단위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바이엘화학(주) (대표 김길원)의 경우 가축의 각종 세균 감염증에 잘 듣는 포르테실린콤포Ⅲ 1억단위 주사제를 개발, 시판하므로써 양축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전의 포르테실린콤포Ⅲ 주사는 4백만단위여서 많은 두수를 주사 할 경우 일일이 병을 갈아가며 주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억단위의 경우 1병으로 25마리의 돼지에 주사할 수 있어 노력과 불필요한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소형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자재비를 절감하므로써 가격인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사에서 개발한 반추 가축 제 1위 기능강화 및 소화촉진제 루메토닉의 판매가 계속 늘고 있다.

소의 제 1위 무력증은 주로 임신과 분만에 따른 허약, 사료의 급변과 장기간의 수송, 농후사료의 과다급여로 빈발하는데 루메토닉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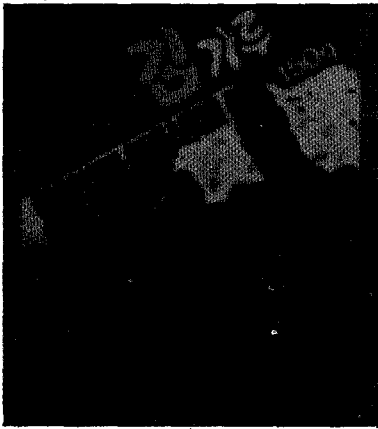


제 1위 무력증에 효과높은 예방 치료약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루메토닉은 반추가축의 제 1위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고 제 1위 식체, 위무력증 발생시 발생하는 반추기능 저하를 위와 장의 근육과 신경에 자극을 주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사료의 과식으로 발생하는 거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한제분 치킨튀김가루 시판개시 : 대한제분은 특급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분유, 계란분말, 전분, 향신료,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정통 치킨튀김의 맛을 내는 튀김가루를 생산 시판한다.

미국 Pillsbury 와 기술제휴로 생산되는 튀김가루의 공급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닭 튀김요리를 즐길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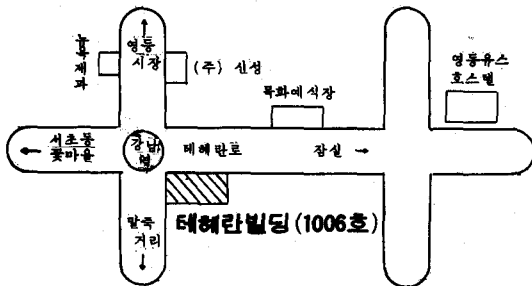


○ 미국 스미스크라인 백크만 한국사무소(소장 신영무) : 지난 6월 1일자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테헤란빌딩 1006호)

전화 : 555~6050

이전약도



기사정정

한국화이자 세미나기사(6월호 P160)중 돼지 성장촉진제 : 콕시스타크⇒포시스타크 녹십자수의약품 제품기사(6월호 P167)중 살충제 : 녹벨⇒류렐

○ 월간 「POULTRY」·「PIGS」 곧 창간 : 양계·양돈분야의 선두 주자인 화란의 Misset 사(농축산잡지 전문회사)에서는 근일내로 월간지 「Poultry」와 「Pigs」지를 창간할 예정이다.

○ 〈주〉대보동물(대표 최종목) : 사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로 영업과장 대리에 최상림(전 녹십자) 씨를 특채하였다.

○ 성원화학(대표 이용남) : 용도가 광범위하고 이상적인 복합화학요법제 트리설파를 개발하여 7월부터 시판하게 되었다.

트리설파는 반감기가 기타 설파제에 비해 월등하게 짧아 체내에서 잔류성이 거의 없는 설파크로르 피리다진과 이 설파제와 복합된 트리메토프림의 이상적인 배합으로 단독제제의 경우보다 6~10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약성이 탁월하여 돼지의 경우 사료에 1일 용량의 7배 또는 권장투여 기간의 9배를 첨가투여하여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아 닭의 만성호흡기(CRD, CCRD), 돼지의 각종하리 및 AR MMA, 송아지의 기관지폐렴, 관절염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포장단위 500g 캔 <100×5>음수 및 사료첨가공용)

대한양계협회 발행

시 세 속 보

구독문의 : ☎ (778) 8103~4